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5월 17일 (셋째 주일/교사주일)

성경본문 : 창세기 9장 20-27절

설교제목 : “벌거벗은지라”

오늘은 교사주일인데, 따라서, 코로나 19의 시대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할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몇 부분에서 당혹스럽습니다. 첫째는 비록 함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은 반윤리적인 행동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만한 행위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함이 했는데,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패륜적 차원의 범죄로, 혹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시각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스타인메츠**란 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이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18-19절을 보면, 본문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일일이 거론됩니다.(창5:32) 최초로 인류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듯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은 정확하게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홍수 재앙 이후에 노아 아들들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1:28)하신 말씀이 다시 갱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창조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다시 인류 안에 죄악이 반복되는 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홍수 이후에 노아는 포도농사를 하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20-21절) 성경은 노아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없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경건한 노아조차도 술에 취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인식의 상실상태로 떨어진다는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했던 노아도, 술취해서 범죄함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경고를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반면, 본문은 함의 죄에 집중합니다.**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본문에 ‘**보다**’는 동사 ‘**라아**’인데, 그 보므로 인해 관음증이 생겨났습니다. 그 관음증은 동성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은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알리매**’란 단어는 단순히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벗음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동성애적 욕망으로 아버지를 보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성경 기자는 두 형제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한 것을 강조합니다.(23절) 이것은 두 형제가 함의 부적절한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함의 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았다는 것과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패륜적 차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동성애적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함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계획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파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더불어, 노아는 술이 깬 이후에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25절) 그런데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까? 함이 잘못을 했다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위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입니까? 이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레위기 18장이 줍니다. 레위기 18장은 가나안의 풍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함이 저질렀던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금단의 법을 무시하고 살았던 가증한 문화입니다. 가나안이 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대신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함의 범죄가 가나안의 후손들

에게 똑같이 나타날 것을 예언적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레18:24-25) 가나안이 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함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결국 노아와 함의 타락은 스타인메츠의 말처럼 창조와 타락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하는데, 노아홍수 이후에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의 문제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벌거벗었고, 함은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구속사적 예언의 차원에서도 읽어야 합니다. 노아는 벌거벗음을 누가 가리워 주었습니까? 셈과 야벳이 가리워주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26-27절) 여기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표현은 여호와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데 대해 감사할 때 사용하는 찬송어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벗음을 가죽옷을 지어 가리워주신 것처럼,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벌거벗음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구속사적 예언의 차원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벌거벗음의 죄의 수치가 가리워졌습니다.(롬10:11-13) 우리가 죄로 벌거벗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셈과 야벳과 같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함의 요구를 합니다. 함의 요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범과 법을 무시하고 네 욕망대로 살라는 사탄의 유혹과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려는 인간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코로나 19가 드러낸 세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술취함과 동성애적 죄악이 팽배해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19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잘못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속의 가치가 아무리 대세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함의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까?
- 3)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코로나 19가 보여주는 세상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함이 보여주었던 타락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